

옛 향기 진한 고미술품 ‘제주 색’ 품다

한국고미술협회제주지회 두 번째 제주고미술소장전
이달 27일까지 갤러리ED… 도자기·민속품 등 300점

옛 향기 진한 고미술품들이 제주
의 색을 품어낸다.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한라일보 1층 갤러리ED
에서 열리는 ‘제주고미술소장전’
이다.

한국고미술협회 제주지회가 두
번째로 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들이 소장한 도자기, 가구, 목기,
옹기, 민속품 등 다양한 장르의 고
미술품 300여 점을 선보인다.

옛 그림·글씨를 비롯해 옛 토기,
고려청자정병, 조선청화백자주병
등 고도자기와 지승(종이로 만든
노끈)으로 만든 삼총장, 제주 전통
목재인 굴무기(느티나무)와 사오
기(산벚나무)로 만든 고가구, 나무
로 만든 목기, 흙으로 빚은 옹기,
민속품 등이 공개된다.

여기에 도내외 유명 균현대 작가

들의 미술작품과 고가구에 다이아
몬드를 예술적으로 결합시킨 작품,
요즘 보기 드문 균현대사 자료,
120년 전 유럽에서 발행된 480장의
그림엽서, 안도 다다오의 친필 드
로잉과 사인이 있는 책, 등도 선보
인다.

특히 이 중에는 제주 관련 희귀
자료도 있다. 1934년에 제작된 ‘탐
라기념’의 저자 심재 김석의 선생
이 쓴 주희(朱熹)의 ‘무이도가’ 10쪽 병풍(1934년),
등이 함께 전시·판매된다.



‘탐라기념’의 저자 심재 김석의 선생이 쓴 주희의 ‘무이도가’ 10쪽 병풍(1934년).

김천만 고미술협회 제주지회장은 “장기간 침체돼 있는 국내 고미술 시장의 활성화와 도내외 고미술 애호가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시를 열게 됐다”며 “민속품, 목물, 석물, 분청사기 등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제주의 고미술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주 고미술품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만들어진 한국고미술협회 제주지회는 현재 1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 봄 전시와 10월 가을 전시로 나눠 두 차례 고미술소장전을 열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서울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제주서 본다

문예회관서 8편 상영
30일 ‘디토 파라디소’

올해 서울 예술의전당의 우수 공연
을 제주에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은 올해 서울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을 제주에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국립예술
단·국내 대표 예술단체의 클래식
콘서트, 연극, 오페라, 발레 등 다
양한 장르의 공연을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디토 파라
디소’ 클래식 음악 공연을 시작으
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제주문
예회관 대극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총 8편의 우수 공연을 선보인
다. 공연은 오후 3시에 상영된다.



첫 상영작인 ‘디토 파라디소’는 지난 2007년 창단된 실내악 그룹 ‘양상불 디토’의 10주년 갈라콘서트로, 피아니스트 임동혁, 지용, 스티븐 린 등이 무대를 펼친다.

공연 관람 예약은 제주도 문화예
술진흥원 예매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향후 공연 일정은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로마 청소년들이 전하는 평화 울림

6월 24일 교황청 대성당
‘4·3 평화 레퀴엠’ 공연

제주 4·3주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오는 6월 로마의 교황청 대성당에서 울려퍼진다. 제주와 로마 청소년들이 함께 울림을 전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 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제주 4·3 평화 레퀴엠’ 공연이 오는 6월 24일 로마에 있는 교황청 소속 ‘산타마리아 멜리 안젤리에 데이 마르티리 성당’에서 제주의 아픔, 세계의 평화로-로마 교황령에 울려 퍼지는 4·3 레퀴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평화 레퀴엠’은 제주 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문효진씨가 제주 4·3을 주제로 만든 곡이다. 공연에는 로마오페라극장 소속 오페스트라단원 40명과 어린이합창단 6명, 로

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합창단 32명 등으로 구성된 ‘복스인아르떼 앙상블 오케스트라’와 13명으로 이루어진 제주 어린이 중창단인 ‘제주 유스 코러스’가 함께 무대에 선다.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의 지휘자인 파브리치오 까시가 지휘를 맡는다.

4·3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미카엘 마르투시엘로 로마 복스인아르떼 협회 회장이 총기획하고, 제주 출신 부종배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립오페라극장 성악가가 연출, 문효진 작곡가가 음악감독을 맡는다. 공연은 한국을 위한 미사 후 1시간 가량 이어진다.

공연과 더불어 다음 날인 25일에는 로마시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에서 ‘평화를 위한 연대-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밀호관 <447>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제만그림글자 응용>



으 맹 이 올멘 “누님, 나 아양하게 놀래 불러보는디 잘도 에려운게마음.”

즘 네 올없저 “경후여도 잘 해온신계. 으맹이야, 벳 밭론 디랭 경저탱가리 너미 하영 널어부난 문 안 물란 또시 널잇저.”

하르바지 올멘 “아으덜아, 이제부 미래에서 온 온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악 을 헤 거난 아양하게 놀래 헤명 꿈 이악 소곱더래 들어오라보저.”

장미를 산 방더래 들어완 보난 아버지는 블씨 식개방더래 갈 채비를 문 드치고 이섯주.

“에나야, 생일 축하하.”

아빠는 나신디 책이영 스웨터 포마리를 췄다. 책을 보자 마자 태밍이가 빛았다. 이번인 계설로 짠 스웨터가 덤이난 해마다 생각웃이 책을 선세품으로 주는 아빠를 용서하기로 헤였다.

“에나야, 스웨터는 엄마의 선세품이여. 어른이 웬 기념으로 똑 열일곱 술 생일 때 주렌 단탁후여라. 하영 아프난 쉬웬 헤여신디도 느네 어멍은 지 거영 스웨터를 헤나씩 짠 선세품으로 냉것저께.”

<계속>
자료:청소년 장편소설 ‘미래 소녀 온나’ 박미운작. 도서출판 한그루.

으 맹 이 올멘 “하르바님, 나 미래에서 온 온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꿈 이악을 고분 고분 잘 들었지난 그냥 꽂아줍서양. 경후꼭 오낼 아적이 잘도 벳 발란양 올랫담에 감저탱가리 또시 널언마마끔. 잘 헤였지양?”

제주어 풀이

*벳 바르다(벳 블르다) : <그림>별 바르다.

*에려운게마음 : 어려워요. *벳 밭론 디랭 경후연 : 별이 잘 드는 데라고 하여. *감저(감자, 감개) : <이름>고구마.

*탱가리(탱구리) : <이름>고구마나 채소나 풀의 줄기.

*태밍이가 빛았다 : 머리가 아팠다. *선세품 : 선물.

*어멍은 : 어머니는. *지 거영 느 : 자기 거와 네.

*냉것저께 : 남겼지. *아침 : 아침. *벳 발란양 : 별이 들어서.

도립미술관 상반기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이 오는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2025 어린이 미술학교’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반기 어린이 미술학교에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4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토·일에 총 5개의 과정으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힘한 영 작가의 ‘나만의 감정캐릭터 만들기’, 김만 작가의 ‘나만의 아트북 만들기’, 고윤식 작가의 ‘미술관 속 상

상놀이터!’, 고윤정 작가의 ‘안녕, 추상’, ‘쓰윽, 선의 여행’ 등이다.

참가 대상은 미술에 관심 있는 도내 초등학생으로, 강좌별 15명씩 총 120명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1기(이달 24~30일), 2기(5월 29일~6월 4일)로 나눠 모집하며, 중복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은 제주도립미술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수강료는 무료다.

박소정기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축하합니다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김선영 외 회원단체 일동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영심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부회장 나경환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감사 고운진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감사 홍정호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안상근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이창훈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정민자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송재경

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능희
한국건축가협회제주건축가회장 박경택
대한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최길복
한국국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수열
한국예총서귀포지회장 안정업

예술은 감동입니다.
창조와 향유, 제주예총이 이깁니다.